

1. 말씀

12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죽음이 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죽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13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그 때는 율법이 없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이 지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15 그러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아담이 지은 죄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입니다.

16 또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많은 죄인들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7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였으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18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9 한 사람이 순종치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20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늘어나게 되었으나 죄가 늘어난 곳에는 은혜도 더욱 풍성하였습니다.

21 그래서 죄가 죽음이란 수단으로 군림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군림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_____

3. 메시지

- 죄와 사망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나요? (12절)

→ _____

-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설명합니다. 아담이 가져온 결과와 예수님이 주신 결과는 각각 무엇인가요? (16-19절)

→ _____

- 나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아담 안의 본성)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나요?

→ _____

- "죄가 늘어난 곳에는 은혜도 더욱 풍성하였다"(20절)라는 말씀은 큰 위로를 줍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경험한 순간이 있었나요?

→ _____

- 내 삶에서 '죄가 왕노릇하던 자리'에 지금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 드러나야 할 영역은 어디인가요?

→ _____

- 본문은 죽음과 생명을 대비합니다(12, 17, 21절) 나는 죽음이 지배하는 삶과 은혜가 지배하는 삶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나요?

→ _____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 _____

-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이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19절) 나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은 무엇 일까요?

→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5:12-21 (옛 사람과 새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악을 행하려는 내적 본성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반영하려는 새 생활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죄 사이에서 어느 한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갈등은 에덴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아담이 선택한 결정은 불행하게도 죄로 자기를 가리고 은혜로부터 달아났습니다. 이 유산을 상속받은 우리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우리 자신의 죄를 더함으로써 대표자 아담이 지은 죄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핑계치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범죄 한 결과로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왔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류에게 은혜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기로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악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차지했고, 죄책감과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습니다. 죄의식에 매달려 심판을 받을 것인지, 숨기를 그만 두고 주님 앞에 나와 죄를 인정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을 것인지, 선택의 시간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을 모든 사람들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난 공동체의 위기에서 나 하나부터 선한 한 사람이 되려는 의식과 작은 주인공이 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6. 기도